

# 韓半島南部 鐵器文化의 波動

## － 初期鐵器·原三國期 鐵器의 系譜와 劃期 －

이 동 관\*

---

### 목 차

#### I. 머리말

#### II. 한반도 동남부지역 초현기 철기와 획기

#### III. 한반도 중부지역 낙랑 철기문화의 파급과 지역적 변용

#### IV. 맺음말

---

---

\*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본고는 2013년 개최된 제22회 영남고고학대회 발표문을 수정·가필한 것이다.

## 국문요약

동남부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다양한 기종과 압도적 수량을 바탕으로 철기 문화의 수용과 개별 기종의 전개, 변천양상에 있어 상당한 연구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초현기 철기 문화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몇몇 연구자에 의해 다루어짐에 따라 그 대략적 양상도 밝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따비를 비롯한 철기유물의 조합과 구성, 토기의 변화양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간 축을 설정함으로써 동남부지역 초현기 철기구성의 실체가 월성동유형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월성동유형 I 단계에서 II $\alpha$ 단계의 철기조합과 구성에 급격한 변동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원전 1세기경 동남부지역의 철기문화에 제1회기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회기는 동남부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남부지역, 중부지역의 철기문화의 쇠퇴와 연동된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이전까지 연구에서 동남부지역 초현기 철기문화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우리의 눈을 가려왔던 것은 본문의 편평편인석부와 판상철부를 동일 형식(形式)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뿌리깊은 일반론과 월성동유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재였음을 본고의 검토로서 증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또 예산리 1호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주조철부류의 기원이 낙랑지역에 있으며 이것이 2세기후반 중부지방으로 파급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용, 정착한다는 것을 형식학적으로 검증하였다.

### Ⅰ 주제어 Ⅰ

따비, 판상철부, 월성동유형, 낙랑계 주조철부

## I. 머리말

한반도 남부의 철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세죽리-연화보유형에 이어지는 초기철기시대의 양상부터 원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에서 가시적 성과가 축적되었다 할 수 있다.

특히 동남부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다양한 기종과 압도적 수량을 바탕으로 철기 문화의 수용과 개별 기종의 전개, 변천양상에 있어 상당한 연구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초현기 철기문화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몇몇 연구자에 의해 다루어짐에 따라 그 대략적 양상도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철기 전개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철기의 비교적 넓은 시간 폭을 감안한 탓인지 그 시간적 위치에 대하여 주관적인 경우가 많고 비교적 너그러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철기의 편년안 이면에는 철기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수용한 서로 다른 토기편년관이 존재한다. 그런 연유로 토기를 보는 시각에 따라 철기를 통한 획기 설정에 있어 모호함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시대설정 등의 문제에 있어서 철기를 통한 설명 그 자체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초현기 철기구성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이러한 현상들이 최근의 연구경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철기의 시간 폭이 넓기는 하지만, 철기에 의한 편년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철기의 경우 토기나 여타 유물군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며 그렇기 때문에 철기조합의 변화, 新·舊形式의 등장과 소멸 등이 가지는 획기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철기의 내재적 의미를 型式의 변화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해나간다면 보다 다양한 관점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본고에서는 먼저, 동남부지역 초현기 철기문화의 실체를 해명하고, 철기 개별기종의 型式변화, 철기조합과 구성 등을 통하여 정확한 시간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후 획기를 파악하고 초현기 철기문화의 획기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히 고찰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선을 돌려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는 동남부 외 지역에서 원삼국시대 본격적인 철기 재등장시점을 주조철부를 통하여 살펴보고 그 계보와 철기문화의 파급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은 최종적으로 백제 철의 존재와 실체에 접근하는 시작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남부 전역의 광역적 병행관계를 설정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Ⅱ. 한반도 동남부지역 초현기 철기와 획기

한반도 동남부지역(영남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비교적 다양한 철기류가 갖추어져 출토되며 그 수량 또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에 의하여 그 변천,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지적된 바처럼 원삼국시대 상한에 대한 문제, 서북지방과 동북지방의 철기 문화, 좁게는 중부지방과의 비교검토, 철 생산 개시와 그 동력 등 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우병철 2012). 하지만 외적논의에 앞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각종 철기의 계보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채 그 전개와 변천양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먼저 각종 철기유물에 대한 계보관계를 검토하고 최근 정인성(2007, 2008, 2011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와질토기 연대 역상론에 대해서도 일부 철기유물을 통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소위 초기철기시대, 초현기의 철기는 금강유역권의 자료들이 주된 대상이 되어왔다. 세죽리-연화보유형을 이은 서남부지역의 농공구세트(장방형 주조철부, 철착)에 대해서는 대략 기원전 2세기라는 연대가 일반적이다.<sup>1)</sup>

이남규는 일련의 논고에서 동남부지역 일부 철기의 경우 그 시기가 낙랑 설치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형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철기사용개시를 낙랑 설치라는 획기에 두고 있는 듯하다(이남규 1999, 2002, 2011).

송계현은 주조철기에 앞서 단조철기가 출토되며 그 양상이 서남부지역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 예로서 동래 萊城유적 1호 주거지 단야공정의 흔적을 들고 있다. 이 지역에서 주조와 단조철기의 생산이 한사군 설치 이전으로 소급됨을 지적한 것이다(송계현 2002).

동남부지역의 철기문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김두철 또한 송계현의 견해를 적극 평가하면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단계부터 철기생산뿐만 아니라 철생산(제련)이 이루어

1) 최근 김상민(2012)은 완주 갈동 3호에서 출토된 철검, 주조철부, 점토대토기, 동촉 등의 일괄유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기원전 2세기대 농공구세트에 앞서는 最古식으로 보고 燕下都의 하한을 고려해 기원전 3세기라는 연대를 부여하였다. 김상민의 1기에 속하는 철기군이 2기와 단절적인 것이 아니고 김상민의 주장대로 燕계에서 在地계로의 연속적 변화라고 한다면 3기 이후 나타나는 철기의 공백에 대한 해석 문제와, 이와 연계된 재지화과정의 철기생산양상, 1기와 2기 이후(세죽리-연화보유형에 연속되는)의 철기조합이 상이한 문제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지만, 갈동 3호 철검의 형식과 공반토기로 볼 때, 기왕의 남양리, 소소리, 함송리 등의 철기군에 앞서 반입된 燕계 철기의 존재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만조선 성립과 준왕의 남하와 연계된 것으로 보는 신경철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단계 다양한 철기의 계보를 주로 한국식동검문화기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과(철검, 철촉, 단조철부, 판상철부, 검, 따비, 단합범 제형주조철부), 세죽리-연화보유형(쌍합범의 단면장방형 주조철부), 낙랑을 통해 수용한 새로운 형식의 것 등(철모?)<sup>2)</sup> 3자로서 설명하고 있다(김두철 2009).<sup>3)</sup> 이와 같은 해석의 배경에는 와질토기가 기존의 제작전통 위에 낙랑의 제도술을 받아들여 성립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면, 최근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동남부지역을 분석한 우병철은 전국계 철기 중 일부는 서한(西漢)시대까지 유사한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국계인지 한의 영향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초기철기시대 철기의 대부분을 전국계 혹은 한계 철기를 수용하여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후 원삼국시대 전기의 철기문화도 앞서기 초기철기시대 철기 기종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우병철 2012). 하지만 팔달동 Ic단계인 팔달동 30호 등은 초기철기시대로 보면서 조양동 5호는 원삼국시대로 보는 등 그 시간축의 설정에 있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전술한 연구자간의 절대연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병철의 연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철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들이 철기문화의 전개양상을 파악함에 있어 대체로 철기의 시간 폭을 넓게 설정함에 따라 세부적 시간성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각각의 시간축에 바탕으로 삼고 있는 토기편년 연구의 차이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당히 역동적이라 할 수 있는 동남부지역 초현기 철기의 실체와 그 계보를 파악함에 있어 명확한 시간축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또 철기문화의 계보와 획기를 파악함에 있어 기왕의 토기편년에 맞춰 전개과정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자칫 소모적 순환논리의 오류를 범하게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철기의 계보와 획기 파악에 있어서 개별 기종의 시간적 변천과 철기세트구성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철기 나름의 주체적 시간축과 획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은 현재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초기철기시대의 개시문제와 관련해서도 발전적 결론을 도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적 선후관계

2) 낙랑에 계보를 두고 있는 철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高久健二(1992)가 언급한 철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3) 후술하겠지만, 이들 철기조합상에는 당시의 역동적 사회배경으로 미루어 보아 계보추급에 앞서 보다 세분화된 철기편년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명하고 철기 기종(形式)의 조합양상과 필요한 경우 型式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획기를 파악하도록 한다.

## 1. 철기를 통한 시간 기준의 설정

최근 정인성(2007, 2008, 2011 등)에 의해 와질토기가 전국계 토기에 기술적 계보가 있는 위만조선 토기의 영향으로 성립했다는 견해가 제시된 이 후, 원삼국시대 편년연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와질토기 연대 역상론(逆上論)이 그것인데, 각 연구자간의 입장차에 대해서는 다른 논고(정인성 2011)에서 자세히 정리된 바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기본적으로는 다호리 1호의 성운문경과 조양동 38호의 이체자명대경 등 한경의 연대 문제, 그리고 이들에 앞서는 조양동 5호의 기원전 1세기 후반 또는 기원전 1세기 중엽이라는 기존 신경철의 연대관에 대하여 정인성은 토기를 중심으로 약 50년 정도 소급시키고 있다. 또 이 단계에 이미 전국계의 타날문단경호를 재지인이 모방해서 제작한 것으로 보고 그 이전인 기원전 2세기 중반 무렵에는 낙동강 유역권에도 타날문단경호가 이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산리 3호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상의 논쟁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예산리 3호의 연대이다.

윤형준의 석사논문(윤형준 2009)에서는 예산리 3호에서 출토된 장각의 두형토기가 다호리 1호에서 철기의 형태로 출토되었고, 교동 8호에서는 와질의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공반되었으며, 공반된 봉상파수는 명사리식과는 거리가 먼 퇴화형이라 하여 기원전 1세기 후반대에 두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빠른 형식과 늦은 형식이 공반되었을 때 늦은 형식의 연대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예산리 3호를 기원전 1세기 3/4분기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정인성(2011)은 두형토기의 존속시간을 예산리 3호단계부터 교동 8호단계까지 넓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나아가 中空 천장의 高低라는 두형토기의 대각 형태에서도 시간적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 유적의 선후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서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밀양 교동 8호의 연대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기원전 1세기 3/4분기로 본다는 점이 공통되며, 별 다른 異見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축에 대한 이야기를 기원전 1세기 3/4분기의 교동 8호에서부터 전개하고자 한다.

밀양 교동 8호에서는 두형토기 이외의 철기유물로서 영남식 외날따비(이하, 따비)가

출토되었다. 필자는 拙稿에서 따비의 시간적 변천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李東冠 2011), 이를 바탕으로 교동 8호의 따비를 보면 크기와 착장각도에서 Ia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남식 따비의 최고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부 단면형태의 형식변화로 보자면 I 형식단계의 서부·경남지역형에 해당한다(그림 2). 줄고를 제출하던 당시에는 경사편년이 적용된 1세기 중·후엽이라는 일반론을 적용하여 I 型式期 따비 단면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차이를 지역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은 공통문화권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색을 띠는 방향성을 가진 원삼국시대의 대체적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또 다호리 1호에서 출토된 따비를 직접 실견할 기회를 가졌고 실제 이 유물의 인부 단면형태가 II 型式期の 형태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임당 A-I-148호 출토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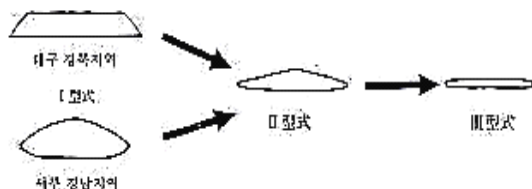


그림 2. 따비 인부단면의 형식변화(이동관 2011)

결국 I 형식기 서부·경남지역형의 단면형태는(그림 2)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 형식기 서부·경남지역형의 단면형태에 대한 내용을 철회하고, I 형식기의 사다리꼴 단면에서 II 형식기의 삼각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수정한다(그림 3).<sup>4)</sup>



그림 3. 따비 인부단면의 형식변화(본고 수정안)

따라서 밀양 교동 8호나 다호리 1호의 따비는 최고식이 아니며, 경산 임당 A-I-148호나 팔달동 101호의 따비가 형식학적으로 앞서는 것이며, 따비의 형식변화만을 기준으로 보면 임당 A-I-148호→팔달동 101호→교동 8호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고, 철기의 비교적 넓은 시간폭을 감안한다면 임당 A-I-148호(古단계)와 팔달동 101호·교동 8호(新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상과 같이 따비를 통한 고단계와 신단계의 선후관계를 공반된 유물을 통해 다시 검

4) 사실 형식학적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의 줄고(이동관 2011)에서 설정한 것보다는 훨씬 타당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증해보도록 하겠다. 선행연구결과 일반적으로 조양동 5호에서 조양동 38호라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정되는데, 주머니호의 경우 구연부에서 동최대경으로 이어지는 동체의 형태가 볼록한 호상을 그리는 것에서 점차 움푹해져가는 변화로 볼 수 있다(안재호 2000a; 이원태 2011). 그리고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파수와 동체부, 구연의 형태 등에서 시간적 속성이 간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당 A-I-148호 출토 주머니호를 살펴보면 구연에서 동최대경으로 이어지는 동체의 형태가 직선적으로 처리되는 중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1, 7, 8). 이러한 시간적 위치에 대해서는 몇몇의 연구에서도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김수경 2000; 김수남 1999). 하지만 조양동 5호에서 38호의 주머니호 변화에서 보자면 저부 형태의 불연속성과 조양동 출토품과 달리 임당 A-I-148호의 주머니호가 흑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산리 3호와 31호에서 대각이 부착된 흑도의 주머니호가 출토되었다. 예산리 3호와 31호 사이에는 2단계 정도의



그림 4. 좌: 예산리 3호 우: 예산리 31호

시간차를 보인다(정창희 2005)<sup>5)</sup>. 이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해 보면 대각부흑도주머니호 동최대경의 하반부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형식학적 변화가 간취되므로, 임당 A-I-148호 주머니호는 또 다른 시간적 방향성 속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각이 탈락되어 임당 A-I-148호와 같은 흑도주머니호가 파생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그림 4 참조).

구체적인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지만, 이상의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이라 할지라도 조양동 5호와 조양동 38호 사이에 임당 A-I-148호가 위치(따비 고단계)한다는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며, 기존의 상대편년 연구에서도 임당 A-I-148호단계는 이성주(2005)의 I-2단계에 해당하며, 정인성(2011), 김일규(2010) 등도 이 단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5) 토기를 중심으로 검토한 정창희는 예산리 3호를 예산리 1호와 동일한 Ia단계로, 31호를 IIa단계로 각각 편년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예산리 3호의 경우 예산리 1호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

## 2. 판상철부의 재검토 - ‘편평편인철부’의 설정 -

판상철부의 조형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 연하도(燕下都)에서 출토된 바 있는 박인도(薄刃刀)에 그 계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송계현 2002; 이남규 1997; 村上恭通 1998)가 주도적이었으나, 기존의 편인석부에서 재질변화를 이룬 것이라는 견해가 김도현(2004)에 의해 제시되면서 기존의 편인석부와 연결 지으려는 입장이 대체적인 경향이다(김두철 2009; 류위남 2009; 신동조 2007; 우병철 2012).

김도현(2004)은 판상철부를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평면형태에 따라 장방형(長方形), 제형(梯形), 팔자형(八字形), 인부 단면에 따라 片刀(A), 蛤刀(B), 無刃(C)으로 구분하고 이 각각 속성들의 상관관계로 시간성을 추출하고 있다. 그 변화상을 정리해보면 소형→초대형으로, 장방형→팔자형, 편인→무인이라는 방향성이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최초 등장하는 장방형 평면형태의 판상철부가 이전까지 그 조형으로 여겨지던 연하도 출토 유물과 평면과 종단면의 형태가 다르고 오히려 장방형 판상철부의 기본적인 형태가 편인석부와 유사한 점을 근거로서 기존의 석기를 조형으로 재질변화를 이룬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장방형(김도현분류-장방형 I·II)판상철부가 最古式이라는 전제이다. 이상의 소위 「석부철기화설」이 제시된 이후 서서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기존의 연구자들도 이 장방형의 형식을 판상철부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 형식이 전형적인 형태의 판상철부와는 그 기능·용도, 계열·계보가 다른 異形式으로서 파악하고 판상철부라는 기종(形式)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 근거의 첫째는 형식학적 방향성이라는 측면이다. 장방형의 형식을 最古단계에 두면 그 시간성이 간취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하고 제형에서 철정이라는 변천과정을 검토하게 되면 두께(刃厚)라는 새로운 시간적 속성이 도출된다. 즉 기존의 장방형 철정의 변화에서는 얇은 것에서 두꺼운 것 그리고 다시 얇은 것이라는 결과를 띠기 때문에 시간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장방형을 제외하고 보면 점차적으로 두께가 얇아져 가는 방향성이 뚜렷이 관찰된다.

둘째로 크기에 따른 분류 기준이다. 필자도 김도현 분류의 중형, 대형, 초대형의 분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다. 문제시되는 것은 장방형이 속하는 소형이다. 소형은 소수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판상철부와는 한눈에 보기에는 그 크기의 차이가 뚜렷하다. 실제 전장 13cm, 폭 4cm를 기준으로 소형과 중형으로 분

류하고 있으나 제형 중 가장 작은 크기인 늑도 출토품이 12.1cm, 폭 3.9cm인 점과 장방형의 것들이 전장 12.1cm의 팔달동 45호 1점을 제외하면 모두 전장 10cm보다 작거나 그 즈음에 위치한다. 따라서 소형의 범주를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형으로 분류된 판상철부 중 장방형과 같이 횡단면이 얇은 장판형을 띠는 것은 없으며 모두 장방형에 비하여 2배 이상 두껍다. 따라서 두께라는 속성을 감안해서 크기를 설정한다면 그 차이는 보다 명백해진다.

셋째는 공반되는 철제공구와의 조합상이다. 출현기 장방형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철검+철착+철사로 시작되는 반면 제형이나 팔자형의 경우 철사, 철착과의 조합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훨씬 다양한 조합양상을 띠며, 이는 후술하겠지만 단계와 획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장방형과 제형이 함께 공반되는 예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소형의 제형에서 최고식의 제형으로 변해가는 중간형식이 없다는 점이다.

이상의 4가지 점을 바탕으로 장방형을 판상철부와는 다른 별개의 형식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판상철부의 最古형식을 제형으로 설정하는데 김도현분류의 장방형→제형→팔자형이라는 방향성에서 장방형만을 제외한 것으로 나머지 크기, 인부단면형태의 시간적 속성은 유효하며, 인부평면형태·기부평면형태는 시간적 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sup>6)</sup>

따라서 이 종의 철기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본문에서는 이 종(形式)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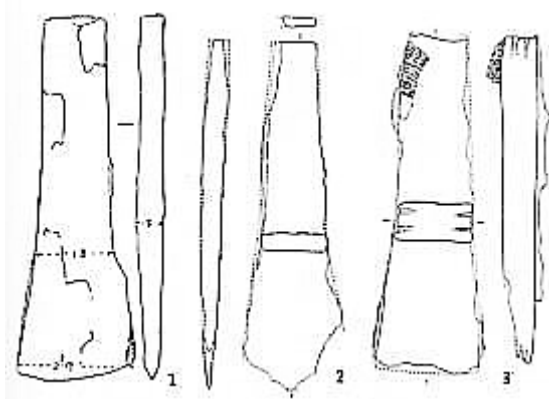


그림 5. 1: 입실리, 2-3: 구정동 A지구  
(최종규 1995에서)

유물을 ‘편평편인철부’라 명명하고 편인석부의 형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석부에서 재질변화를 이룬 결과물로 보는 김도현의 견해에 동의하며, 이로 대표되는 동남부지역의 철기문화유형(樣式)에 대해서는 후술토록 한다.

그렇게 보면 판상철부 중 最古식은 입실리(그림 5-1)에서 출토된 신부두께가 두터운 제형의 것들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신부두께가 얇아지

고 대형화되며 합인에서 무인으로, 이 후 철정으로 形式변화한다.<sup>7)</sup>

6) 실제 김도현(2004)이 검토한 각 속성간의 상관관계표에서 장방형을 생략해보면 크기와 인부단면형태는 유효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인부평면형태와 기부평면형태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관관계를 보인다.

### 3. 주조철부

주조철부는 한반도의 철기문화도입과 관련하여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세부적인 견해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장방형에서 제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할 수 있다.

영남지역의 초기목관단계 제형주조철부의 성립과 변천양상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타케스에(武末)의 논고를 들 수 있다(武末 2006). 타케스에는 공부의 형태를 주요한 속성으로 인식하고 공부가 낮은 형태에서 점차 높아지는 형태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武末 2006).

즉 쌍합범의 장방형에서 계기적으로 변화하여 단합범의 제형주조철부가 출현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며, 따라서 장방형의 전국계, 제형의 재지계라는 이원적 계보론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제형으로 변화한 이후의 변천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고(김도현 2001; 김상민 2009; 류위남 2009 등)가 있으며, 필자도 拙稿(이동관 2010)를 통하여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장방형 주조철부(주조철부a류)와 제형 주조철부(주조철부b류)와는 그 형태와 계보를 달리하는 또 한 종의 주조철부가 성주 예산리 1호에서 한 점 출토된 바 있다(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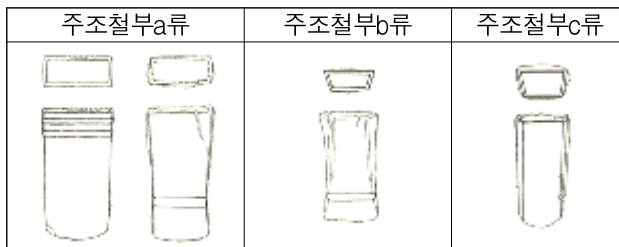


그림 6. 주조철부의 분류

철부c류)(그림 6). 신부상면의 굴곡선이 공부에서 인부에 이르기까지 직선적으로 이어지며, 공부가 타 주조철부에 비하여 높으며 비교적 전장이 짧은 형태의 것들로서, 중부지역의 가평 대성리, 강릉 초당동, 홍천 하화계리 등과 낙랑토성에서 출토된 바 있는 다른 형식의 것이다. 이 종의 주조철부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후술토록 하는데, 동남부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예산리 1호 단 1점뿐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의 반입품으로 추정된다.

7) 후기 목관단계나 목곽,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판상철부와 철정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고에서 언급한 바 있기에 생략한다(이동관 2010, 2012)

#### 4. 획기와 편년 - ‘월성동유형’의 설정 -

##### 1) 월성동유형과 단계설정

주머니호가 보이지 않고 동최대경이 동하위에 처져 있는 장경호, 무문토기 용 등 조양동 5호보다 확실히 한 단계 앞서는 시기(팔달동 Ia단계) 철기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조합의 것인지 등에 대하여 유형화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연구자간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획기가 객관화되지 못한 것에 그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철기시대의 철기양상, 즉 초현기 철기의 실체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의 철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밝혀낼 필요가 있다.

2006년 발굴된 대구 월성동 777-2번지의 초기목관묘 출토유물들은 이러한 초현기 철기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각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이른 단계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두형토기와 공반되는 월성동유적의 철기는 모두 철검, 편평편인철부, 철사, 철착의 4종으로 구성된다.

어느 유구에서도 주머니호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체로 동최대경의 동하위에 처져 있는 장경호가 출토된다는 점에서 I 지구 12호출토 검파두식을 갈현리 출토품과 비교하여 기원전 2세기 후반으로 편년한 나카무라(中村 2009)의 연대관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조양동 5호에 앞서는 시기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철기를 보아도 세형동검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동남부 지역 특유의 철검을 제외한다면 초현기 서남부 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 전체와 일본 야요이시대의 철기구성과 거의 동일한 양상이다. 다만 여타 지역의 세죽리-연화보유형에 연결되는 철기구성에서 보이는 주조철부 a류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동 시기의 팔달동 Ia단계까지 그 공간적 범위를 넓혀 보면 팔달동 56호, 57호 등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주조철부 a류 또한 초현기 철기구성의 하나로 판단해도 좋다.<sup>8)</sup>

즉 편평편인철부, 주조철부a류, 철사, 철착, 철검의 철기구성이야 말로 동남부지역 초현기 철기의 실체인 것이다. 서남부지역 주조철부 a류, 철사, 철착이라는 기본구성에 편평편인철부와 철검이 추가된 것인데, 동남부지역의 특징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월성

8) 팔달동 보고서의 고찰을 집필한 김수경(2000)은 팔달동 Ia단계를 토기를 중심으로 검토함에 따라 이른 형식의 토기라도 철기와 공반되거나 철기만이 출토되는 유물의 경우 Ib단계로 설정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월성동유적과 같이 이른 시기의 철기가 출토되는 42, 49, 56, 57(?), 75호도 본고에서는 팔달동 Ia단계, 즉 조양동 5호에 앞서는 단계로 보고 있다.

동유형'으로 설정한다.<sup>9)</sup>

월성동 유형 이후부터는 전술한 따비와 공반토기의 검토를 통하여 조양동 5호→임당 A-I-148호→조양동 38호·교동 8호라는 시간축을 제시하였다.

월성동유형과 제시한 시간축을 바탕으로 단계설정한 것이 〈그림 7〉이다.

## 2) 편년과 획기

전술하였듯 교동 8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기원전 1세기 3/4분기로 인정하는 듯 하며 필자도 동의한다. 따라서 IIc단계의 경우 기원전 1세기 3/4분기로, 이보다 한 단계 앞서는 인부 횡단면이 제형인 것(따비a)의 경우 그 전 단계로 IIb단계의 경우 그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시원적 형태의 주머니호가 출토되는 조양동 5호단계, 본문의 IIa단계는 월성동유형인 I 단계의 직후단계로서 〈그림 7〉에서도 알 수 있듯 제형의 주조철부b류가 등장하고 판상철부와 단조철부, 철검, 환두도 등이 일시에 등장하는 등 동남부지역에 있어 철기문화의 첫 획기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가 간취된다.

한편, 성주 예산리 1호에서는 전술하였듯 특이한 형태의 c류의 주조철부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주조철부 c류의 대략적 변천양상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낙랑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봐도 좋으며, 공반출토된 주머니호나 토기의 양상으로 보아 조양동 5호와 같은 IIa단계이다. 그리고 주조철부c류가 낙랑에서 반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한연대는 낙랑군의 설치, 즉 기원전 108년에 해당하는데 따라서 이를 기원전 1세기 1/4분기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IIa단계는 기원전 1세기 1/4분기로 교동 8호의 IIc단계는 기원전 1세기 3/4분기, 그 중간에 위치하는 IIb단계는 기원전 1세기 2/4분기로 각각 편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에 앞서는 I 단계의 경우 2세기 후반 정도로 볼 수 있다.

---

9) 팔달동 27호, 팔달동 57호, 팔달동 67호의 단신형철모가 월성동유형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성동유형과는 별도로 교류, 교섭에 의한 반입된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는 유보하도록 한다. 다만 우병철(2012)이 이와 동시기의 것으로 보고 있는 팔달동 90호의 장신형 철모는 판상철부와 공반되기 때문에 후출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장신형 철모의 등장은 조양동 5호단계의 획기와 연동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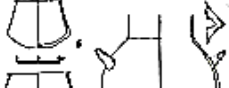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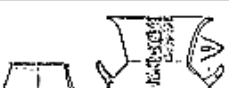
단계	편평편인 철부	철검	철사	철작	주조철부		원토		관상 철부	한조 철부	철검	문무도	여가		보거	비고
					조각형	조각형	한신형	장신형					a	b		
I																제3호, 77-2번지, 4번 연방 B-8-33, 34호 조각형, B-8-33, 34 56, 57, 58, 59, 77, 110, 제3호, 3호1호
IIa																팔달동 1호 예산리 3호 조각형 3호 조각형, 제3호 제3호, 제3호
IIb																팔달동 1호 예산리 3호 조각형 3호 예산리 3호 예산리 3호 예산리 3호 예산리 3호 예산리 3호
IIc																팔달동 1호 예산리 3호 조각형 3호 예산리 3호

그림 7. 단계설정과 편년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리 3호의 연대에 대해서 보고자는 예산리 1호와 같거나 주머니호(시원적 형태의)의 형식분류<sup>10)</sup>로 보자면 조금 늦은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정창희 2005). 본문의 I 단계에 해당하는 장경호와 공반되는 주머니호의 형식이 문제가 되는데 필자는 예산리 1호와 3호의 주머니호가 저부의 형태에서 시간적 순서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1호의 경우 각종 철기구성으로 볼 때, 철기가 보이지 않는 3호에 비하여 한 단계 후행할 가능성을 적극 평가하여 3호를 잠정적으로 I 단계에 위치 설정해 둔다.

I 단계는 대체적으로 팔달동 I a단계와 병행하는 시기로 편평편인철부, 철검, 철사, 철작, 주조철부a류로 구성되는 월성동유형 단순기이다. 전술하였듯 세죽리-연화보에서 이어지는 서남부지역의 철기구성에서 세형동검을 모방하여 철검이 제작되는데, 이러한 유물의 구성과 시간적 위치 등으로 볼 때 월성동유형의 등장은 서남부지역의 철기문화에서 파급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0) 예산리 1호 주머니호의 얇은 겹구연을 적극 평가함으로서 3호 주머니호에 앞서는 형식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사실 철기의 제작기술로 볼 때 이러한 철기구성은 상당히 초보적 수준의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철소재를 수입하여 월성동유형의 철검과 같이 지역색을 가진 단조 철기를 일부 생산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원적 철기생산체계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동래 萊城유적 1호 주거지 단야작업의 흔적(송계현 2002)이나 사천늑도 A지역의 노벽편, 송풍관, 철재, 단조박편, 완형재 등의 제철관련 자료들이다(이남규 2006).

I 단계의 월성동유형 단순기를 지나 다음의 IIa단계가 되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대획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각종 철기들이 일제히 출현한다. 장신형의 철모와 판상철부, 단조철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며 철검, 환두도와 예산리 1호와 같은 재갈 등이 그것이다.

일부에서는 동남부지역의 철기문화 수용을 일원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철기문화 수용의 배경을 기원전 2세기초 준왕의 남하와 연결하여 보는 경우가 있다(김두철 2009; 신경철 1995). 시간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I 단계의 월성동유형 중 특히 철사, 철착, 주조철부a류의 경우 당시 한반도 남부 전역과 일본열도의 야요이시대에 이르기까지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철기구성이다. 즉 이를 사람의 이주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당시 폭넓은 교류, 교섭, 교역 네트워크를 통해 철소재를 입수하고 초보적인 철기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면 IIa단계의 획기는 높은 수준의 철기제작기술력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완성된 철기구성이 일제히 출현하며, 주조철부b류를 제외하면<sup>11)</sup> I 단계의 월성동유형에서 그 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를 통틀어도 동남부지역 외에는 이와 같은 철기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출토되는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동남부지역에 풍부한 양질에 철의 존재와 철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제아무리 높게 평가한다할지라도 낙랑군의 설치와 이를 통한 漢문화와의 접촉만으로는 이러한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한 감이 있다.<sup>12)</sup> 결국 I 단계의 월성동유형과 IIa단계의 철기는 각기 그 계보가 다르며, IIa단계의 획기는 완성된 고급기술을 지닌 철기제작집단의 이주<sup>13)</sup>와 동남부지역 철에 대한 재지적 전통이 연동된 결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라 생각된다.

11) 이마저도 쌍합법과 단합법이라는 제작기술적 차이가 존재한다.

12) 실제 철기유물에서 낙랑 또는 한계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13) 낙랑군의 설치를 계기로 동남부지역으로 이주가 상정되는 집단의 실체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의 증가와 연구성과를 기대하며 별고를 기약한다.

한편 이 획기를 기점으로 초기철기시대 철기문화에 있어 선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남부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는 철기문화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이 또한 본 획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낙랑군의 설치 이후 철관(鐵官)과 마노관(馬弩關)과 같은 제도로써 철기의 외부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현상과 연동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김상민 2012). 이는 서남부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철기구성과 월성동유형(I 단계)의 철기제작기술력이 소재를 입수하여 철기를 제작하는 수준의 단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다.<sup>14)</sup> 다만 동남부지역 철기문화의 발전을 낙랑군과의 선택적 교역에 의해 자체적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음을 명백히 한다.

Ⅱa단계가 동남부지역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철기문화가 이입되는 시기라고 본다면 다음의 Ⅱb단계는 동남부지역의 특유의 영남식 외날따비가 등장하고 닳형철기, 서형철기가 출현하는 등 전 단계에 이입된 철기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라 할 수 있겠다.

이 후 대부분의 철기들은 연속적인 방향성을 띠며 안정적으로 전개된다.

전술하였듯 예산리 1호에서 출토된 주조철부c류로 볼 때 Ⅱa단계의 획기는 기원전 100년을 전후한 시점이며 이를 철기문화 ‘제1획기’로 파악한다. 동남부지역에 있어서 이미 안재호(2000b)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장경식의 철검 등 낙랑계 요소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또 하나의 획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금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Ⅲ. 낙랑 철기문화의 파급과 지역적 변용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낙랑의 철기문화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선학들의 노력에 의하여 그 일부가 조금씩 해명되고 있다(김무중 2012; 이남규 1993; 정인성 2006). 최근에도 원삼국시대 중부지역 철기에 대한 검토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김일규 2012; 최영민 2010), 아직도 중부지역의 철기문화의 실체와 계보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14) 즉 일부에서 제기하는 I 단계에는 제련 등의 철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월성동유형과 Ⅱa단계의 각종 철기는 기존의 견해들처럼 일원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보에 바탕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부지역 철기문화의 원류를 찾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접근한 것이다.

필자는 이전 논고에서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에서 제작된 특유의 제형주조철부가 존재하며 일련의 변천양상을 보인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이동관 외 2012).

拙稿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원삼국시대 중부(특히 호서지역)지역의 주조철부 중 비교적 시간적 속성을 잘 반영하는 것은 공부의 형태이며, 하천리 1호주거지와 같이 공부의 형태가 비교적 높고 공부 상면과 하면의 비율이 약 0.8-0.85:1 정도의 장방형에 가까운 넓은 제형을 띠며 금릉동 118호나 석장리 출토품은 공부 상, 하면의 비율이 이보다 낮은 약 0.6-0.7:1이다. 그리고 신봉동 출토품들의 경우 공부높이가 보다 낮은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시론적으로 고찰하였다(그림 9).

본고에서는 졸고의 호서지역 주조철부 계보의 원류를 추급함으로서 중부지역에 철기문화의 파급양상을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졸고의 검토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공부의 형태변화에 있다. 호서지역 제형주조철부의 공부 형태의 변화는 전술하였듯 장방형에 가깝고 비교적 높은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제형에 가까워지면서 공부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특징은 동남부지역 주조철부의 변천양상에서는 읽어낼 수 없는 것으로서 중부지역에서 자체생산된 주조철부의 존재를 증명함과 동시에 동남부지역과는 또 다른 계보를 가진 주조철부의 계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부지역의 가평 대성리유적, 홍천 하화계리 1호주거지, 강릉 초당동 7호주거지 등에서 동남부지역 주조철부의 분류에서 언급한 주조철부c류가 출토되었다. 전술하였듯 공부의 높이가 높은 비교적 소형의 것들로서 낙랑토성의 주조철부 자료에서도 이러한 형식의 것들이 알려진 바 있다(정인성 2006).

현재까지 동남부지역의 예산리 1호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는 출토된 바가 없다는 공간적 특징으로 볼 때, 주조철부c류의 경우 낙랑지역에서의 직접 반입된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이 주조철부c류와 호서지역의 주조철부의 형식변천을 하나의 선상에서 검토해보면 형식조열과 분포론적 시각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 즉 ①공부의 형태가 높은 주조철부c류에서 공부가 낮은 호서지역 신봉동 2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열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상은 ②분포론에 입각한 공간적 배경으로 보아도 중부의 북쪽지역에서 점차적으로 남하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두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는 것은 하나의 계열로 조열됨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중부지역 주조철부의 변천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주조철부c류가 실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는 낙랑토성의 주조철부양상을 역추적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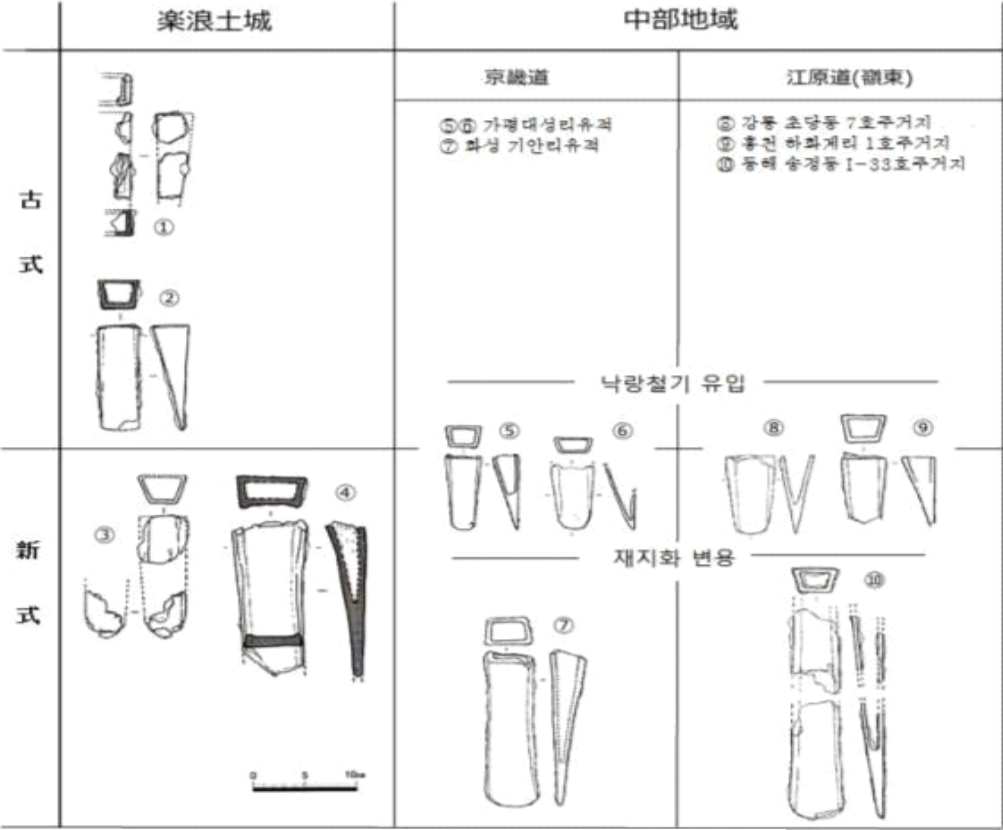


그림 8. 중부지역 주조철부c류의 변천과 변용



그림 9. 호서지역 주조철부의 변천 (이동관 외 2012)

낙랑토성의 주조철부는 신부에 돌선이 있는 것(그림 8-④)과 돌선이 없는 주조철부c류(그림 8-①~③), 두 형식이 병존한다(정인성 2006). 돌선이 있는 주조철부의 경우, 동남부지역과의 교역 등으로 역반입되었을 가능성도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출토량이 빈약하여 그 실체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며, 본고에서는 우선 돌선이 없는 주조철부 c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 주조철부c류의 철기군에 중부지역 주조철부 변천에서 언급한 공부가 높고 장방형에 가까운 것에서 공부가 낮은 제형으로 변화한다는 속성을 대입하여 적용해보면 주목할만한 결과가 도출된다.

즉 장방형의 높은 공부를 가진 주조철부에서 점차 제형으로 변화하는 형식학적 방향성이 간취되는 것이다(그림 8). 물론 낙랑토성 유물의 특성상 공반유물이나 층위를 통한 검증은 어렵지만 낙랑토성에서 중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림 8〉을 보면서 정리하면, 낙랑토성 지역 내 ①→③으로의 자체적인 형식조열로서 추정되며, ②에서 ③으로 변화의 어느 시점에서 낙랑의 주조철부c류(⑤, ⑥, ⑧, ⑨)가 중북부지역의 각지로 파급, 반입된다. 이 후 ⑦의 화성 기안리나 ⑩의 동해 송정동으로 서서히 남하하면서 낙랑지역과는 다른 형태로 각 지역별로 변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한다.

이와 같이 재지화하여 변용된 형식으로 보아 중부지역 중에서도 주로 경기도 지역의 주조철부가 서서히 남하하여 중원 하천리 1호주거지의 호서지역까지 이르게 되며 공부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색을 보이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0). 그리고 대성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야요이토기의 연대(김일규 2009)를 생각했을 때 중북부권에 낙랑의 주조철부가 파급되는 시점은 2세기 후반정도로 볼 수 있다.

주조철부 이외에 최근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된 철모를 검토한 연구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새봄 2011).

문화양식이 다른 타 지역과의 유물을 교류로서 파악하고 비교검토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대전제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 교섭에 의한 반입품이 해당 지역에서는 비보편적이고, 불안정적이어야 하며, 다른 유물이나 유구와의 관계가 있어 모순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대로 생산지 또는 고지(故地)에서는 보편적, 안정적이며 다른 유물이나 유구와의 관계에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武末純一 1991).



그림 10. 중부지역 주조철부 c류의 유입과 전개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채 유사한 형식의 유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해당유물을 교류양상으로서 획일화하고 이를 토대로 동남부지역의 편년안을 일괄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더구나 중부지역에서 철모가 등장하는 시점은 전술하였듯 주조철부를 포함한 낙랑의 철기문화가 파급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또 철모가 출토되는 김포 운양동을 비롯한 중부지역의 여러 유적에서는 대형의 철검 등 낙랑계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 그렇게 본다면 전술한 대전제에서 철모의 경우 중부지역 내에서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반입되어 정착하는 양상인데, 이 유물구성 중 단순히 철모만을 영남지역과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또 여타 낙랑계 요소는 그대로 인정하여 다원화된 교류로 해석하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다.

결국 철모 또한 주조철부와 함께 낙랑문화의 파급에 의해 성립된 일요소로 해석하고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sup>15)</sup> 중부지역으로의 최초 파급 상한연대는 가령 대성

15) 실 예로 충주 금릉동유적의 철모는 최초 철모가 도입된 이후 인부두계(편능형→능형), 관부형태(뚜렷한 것→무관), 기부형태(직기→연미)가 안정적으로 정착변화된다.

리나 강릉 초당동 등지에서 주조철부c류가 반입되는 시기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주조철부의 분포론적 시각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주조철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낙랑토성의 자체적 형식변화 양상을 추정하고 낙랑문화의 파급, 중부지역 철기문화의 성립과 변용양상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검토를 통하여 2세기 후반의 어느 시점에 낙랑의 문화가 파급됨을 명백히 하였다. 철기로 볼 때, 초기철기시대 이후 상당히 단절되어 있던 중부지역에 낙랑의 철기문화가 파급되기 시작하는 것은 桓靈之末의 혼란으로 전술한 철관이나 마노관과 같은 제도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 억제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초기철기, 원삼국시기의 철기문화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따비를 비롯한 철기유물의 조합과 구성, 토기의 변화양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간축을 설정함으로써 동남부지역 초현기 철기구성의 실체가 월성동유형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월성동유형 I 단계에서 IIa단계의 철기조합과 구성에 급격한 변동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원전 1세기경 동남부지역의 철기문화에 제1획기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획기는 동남부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남부지역, 중부지역의 철기문화의 쇠퇴와 연동된 현상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동남부지역 초현기 철기문화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우리의 눈을 가려왔던 것은 본문의 편평편인석부와 판상철부를 동일形式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뿌리깊은 일반론과 월성동유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재였음을 본고의 검토로서 증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또 예산리 1호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주조철부c류의 기원이 낙랑지역에 있으며 이것이 2세기후반 중부지방으로 파급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용, 정착한다는 것을 형식학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문에서 검토한 한반도 동남부지역 초현기의 철기양상뿐만 아니라 원삼국시대 전반에 걸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아쉽게도 영남식 외날따비<sup>16)</sup>가 출토되는 등 영남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충주 금릉동유적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이상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서는 차후 중부지역의 또 다른 철기유물들과 함께 검토할 기회를 갖고자한다.

---

16) 이동관(2011)에서 따비를 중심으로 영남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금 언급한 바 있는데, 낙랑문화의 파급과 변천양상이 점차적으로 남하하여 영남과의 문화접변을 일으킨 결과물로 생각하고 싶다. 구체적인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김도현, 2001, 「고대의 철제 농구에 대한 연구 -김해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4, 「고대의 판상철부에 대한 검토」, 『한국고고학보』 53.
- 김두철, 2009, 「변진한의 철기문화」, 『考古學誌』 特輯號,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 20주년 기념, 국립중앙박물관.
- 김무중, 2012,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철기를 통해 본 낙랑」,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유물과 낙랑』,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제9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요지.
- 김상민, 2009, 「韓半島 鑄造鐵斧의 展開樣相에 대한 考察」, 『湖西考古學』 20.
- \_\_\_\_\_, 2012, 「한반도 서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철기 문화연구 -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학술포럼,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수경, 2000, 「IV. 고찰」, 『대구팔달동유적 I』, 영남문화재연구원.
- 김수남, 1999, 「임당유적 원삼국시대 목관묘」, 『제2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 김새봄, 2006, 「原三國後期 嶺南地域과 京畿忠靑地域 鐵矛의 交流樣相」, 『韓國考古學報』 81.
- 김일규, 2009, 「가평 대성리유적의 철기생산기술」, 『가평 대성리유적(본문2)』, 경기문화재연구원.
- \_\_\_\_\_, 2010, 「瓦質土器의 出現時點과 成立背景」,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立20周年 記念論文集』.
- \_\_\_\_\_, 2012, 「한반도 중부지역 철기문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철기 문화연구 -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학술포럼, 국립문화재연구소.
- 류위남, 2009, 「삼한시대 영남 출토 주조철부와 판상철부 연구」, 『嶺南考古學』 51.
- 송계현, 2002, 「嶺南地域 初期鐵器文化의 收容과 展開」, 『영남지방의 초기철기문화』, 제11회 영남 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신경철, 1995, 「三韓三國時代의 동래」, 『東萊區誌』, 동래구지편찬위원회.
- 안재호, 2000a, 「창원 다호리유적의 편년」,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 鶴山 金廷鶴博士頌 壽紀念 論叢, 학연문화사.
- \_\_\_\_\_, 2000b, 「弁·辰韓의 木棺墓文化」, 『東夷世界の考古学』, 青木書店.
- 우병철, 2012, 「한반도 동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철기 문화연구 -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학술포럼, 국립문화재연구소.
- 윤형준, 2009, 『목관묘문화의 전개와 삼한 전기사회』,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南珪, 1993, 「1~3세기 낙랑지역의 금속기문화-鐵器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論叢』 5.
- \_\_\_\_\_, 1999, 「한반도 초기철기문화의 유입과 보급」, 『제22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02, 「韓半島 初期鐵器文化의 流入 樣相」, 『韓國上古史學報』 36.
- \_\_\_\_\_, 2006, 「勒島遺蹟 製鐵關聯資料의 考察」, 『勒島貝塚Ⅴ-考察編』, 경남고고학연구소.
- \_\_\_\_\_, 2012,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고대 철기 문화 연구동향-초기철기-원삼국시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철기 문화연구-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학술포럼, 국립문화재연구소.
- 李東冠, 2010, 「日本列島における半島製鐵製農具のあり方」, 第22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学交流会 발표요지.
- \_\_\_\_\_, 2011, 「古代 倭비에 대한 考察」, 『韓國考古學報』 78.
- \_\_\_\_\_, 2012, 「九州出土の鉄製農工具と鍛冶関係遺跡から見た対外交渉」, 『沖の島祭祀と九州諸勢力の対外交渉』, 第15回九州前方後円墳研究会発表資料集
- 李東冠 외, 2012, 「백제의 철과 제강기술에 관한 試論」, 『百濟와 주변세계』, 고성주탁선생님기념논총, 진인진.
- 이원태, 2011, 『慶北地域 前期 瓦質土器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鄭仁盛, 2006, 「樂浪土城의 철기 제작」,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20.
- \_\_\_\_\_, 2007, 「낙랑 ‘타날문단경호’ 연구」, 『강원고고학보』 제9호, 강원고고학회.
- \_\_\_\_\_, 2008, 「‘瓦質土器 樂浪影響說’의 검토」, 『嶺南考古學』 47.
- \_\_\_\_\_, 2011, 「중심과 주변의 관점에서 본 辰·弁韓과 瓦質土器의 성립」, 『고고학에서의 중심과 주변』, 제20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정창희, 2005, 「Ⅴ. 고찰 -성주 백전 예산리 목관묘 출토 토기의 편년-」, 『星州 栢田 禮山里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 최영민, 2010, 「원삼국시대 한반도 중부지역 철기문화의 변천」, 『고고학』 제9-2호, 중부고고학회.
- 崔鐘圭, 1995, 『三韓考古學研究』, 書景文化社.
- 高久健二, 1992, 「韓國出土 鐵鉞의 傳播過程에 대한 研究」, 『考古歷史學志』 제8집, 동아대학교 박물관.
- 武末純一, 1991, 『土器からみた日韓交渉』, 学生社.
- \_\_\_\_\_, 2006, 「韓國の鑄造梯形鉄斧-原三国時代以前を中心に-」, 『七隈史学』 7.

【Abstract】

A Widespread Impact of Iron Age Culture o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r : Genealogy and Change of Ironware Types and Assemblages  
during the Early Iron Age and Proto-three Kingdom's Period.

Dong Kwan Yi\*

In the Eastern South area of Korean peninsula, the diversity of types and overwhelming amount of ironwares led to advance in the study of the adoption of Iron age culture,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each type. Some surveying research provided an outline of the incipient Iron age cultu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make it clear that Wolseong-dong type is the instance of the incipient ironware assemblage in the Eastern South area, by building a time axis for the composition of ironwares like iron weeder-plows in relation with change of pottery.

It was also ascertained that there was a rapid change in the ironware composition from the Wolseong-dong I stage to the Wolseong-dong IIa stage. It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first landmark in the iron age culture was in 1st century BC in the Eastern South area. Yet it was not a distinct phenomenon in the Eastern South area, but is also connected with the diminishing Iron age culture in the West Southern and Central area of Korean peninsula.

This research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proved that the single-bladed flat iron axe is a different type from the flat iron axe, which previous research classified as the same and so kept from discerning the incipient period of the iron age which Wolseong-dong type represents.

In addition, it verified that type C of casted iron axe like one from Yesan-Ri Tomb No.1 has its origin in Nangnang province. Typological analysis showed that Type C of casted iron axe spread into the Central region of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2nd century and then was modified and settled.

Key words : iron weeder-plows, flat iron axe, Wolseong-dong type, Nangnang

---

\* Jinju National Museum

